

“ 관상기도(觀想祈禱)는 성경적 기도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에게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후 성도들의 많은 기도생활과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 답한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는 카디쉬라는 짝막한 기도와 18번 축복기도라는 것이 있었다. 하루 세 번 드리는 기도로 유대인에게 가장 기본적 기도였다. 주후 66-70년까지 유대인전쟁을 기점으로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된다. 전쟁 직후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회당에서 축출했다. “배교자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 하는 저주의 기도가 18번 기도 중 12번째 드리는 기도에 있었다. 이때부터 18번 기도 대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공중기도로 드리게 된다.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그 나름대로 기도가 있고 그 형식이 있다.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중심적 기복적 기도, 무속적 기도, 이단적 기도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관상기도란 무엇인가?

관상이란 함께(con)와 기독교적 성소를 뜻하는 templum의 합성어인 contemplation이라 하는데 사물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성소에서 사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라 한다. 사고에 의한 분석적인 하나님 경험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임재 체험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치 않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안에서 쉬는 기도라 할 수 있다. 관상은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서 알려지고 사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다. 이런 뜻에서 관상은 목표이고 그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이 관상기도가 된다. 하나님을 깨달음에서 오는 기도를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 또는 깨달음의 기도라고도 한다.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 하여 향심기도(centering prayer)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관상기도자의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다리라고도 한다. 관상기도의 전통을 제시한 이들은 거의 모두가 동방교회나 천주교인들이다. 이들 다수가 신비주의자들로 그들은 계시가 지금까지도 계속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구 신부, 김정순 수녀 등이 관상기도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개혁신교회 중에서도 한신대 권○○ 교수, 장신대 유○○ 교수, 감신대 이○○ 교수, 고려수도원 박○○ 목사, 다일공동체 최○○ 목사, 더 이상 그 용어 사용을 하지 않으려 하는 지구촌교회 이○○ 원로목사 등이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천주교와 개혁신교회가 기도할 때 관상기도의 신학적 기초는 같다 할 수 있다. 다만 개혁신교회에서는 마리아, 성현들, 형상 등을 사용치 않을 뿐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관상기도의 문제점

관상기도 주장자들 스스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①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 ②지나친 금욕주의 ③반지성주의 경향 ④믿음의 공동체무시 경향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관상기도의 전통에 충실하면 극복될 수 있다고 반증한다. 그러나 뉴에이지 전통 속에 있다가 천주교로 개종한 마가렛 피스터는 관상기도가 전통적 천주교와 달리 뉴에이지적 인 영성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자기체면이라고 비판한다. 관상기도는 아무 생각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 심지어 의식 너머의 상태에 이르고 거기 머무르는 것을 지향하는 비성경적이다. 이런 관상의 상태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자신이 말하는 영적 진전의 마지막 단계를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 이라 부르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 한다. 관상기도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합하여 정화, 주입, 합일의 단계에로 나아가는 반-펠라기우스적인 천주교적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종교개혁과 함께 잠적해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관상기도는 오직 성경만의 원리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려는 개혁교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참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교체하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만 의존하여 성령님의 감화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체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다. 관상기도의 주장자들이 제시한 성경 구절들(계1:7, 3:20, 시145:5, 19:14, 46:10, 116:9, 마5:8)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한다. 또한 어떤 것이든지 그 사상의 근원을 파악해야 한다. 유행따라 또는 존경하는 분의 가르침이니 자세히 살펴봄 없이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한 신앙생활에 빠질 염려가 많다.

- 한국장로신문 [1435호] 2014년 11월 15일에서 발췌-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굽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라,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계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정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이 땅, 땅, 쉐,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 이, 난, 쟁, 쟈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비 벨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 미얀마) 필리몬 프로신토, 수레시 수바소, 이경업 알로롱 비시 누뽀도, 보디소프, 린툼, 수란찬(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쑤 군선교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td> <td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서울교회</td> <td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td> </tr> <tr> <td style="font-size: 1.2em;">대한예수교장로회</td> <td style="font-size: 1.2em;">서울교회</td> <td style="font-size: 1.2em;">+</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weight: bold;">SEOUL PRESBYTERIAN CHURCH</td> </tr> <tr> <td style="font-size: 0.8em;">원로목사 Emeritus Pastor</td> <td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이 종 윤</td> <td style="font-size: 0.8em;">Lee Jong-Yun, Ph. D., D.D., D. D.</td> </tr> <tr> <td style="font-size: 0.8em;">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td> <td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박 노 철</td> <td style="font-size: 0.8em;">Park, No Cheol</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size: 0.8em;">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size: 0.8em;">Tel,558-1106 / Fax.558-2107 / http://seoulchurch.or.kr</td> </tr> </table>	+	서울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 http://seoulchurch.or.kr		
+	서울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 http://seoulchurch.or.kr																						

“가장 중요한 질문”

■ 막 10:17-27

총체적인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안녕과 행복이라는 두 단어가 있을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요즘 타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애썼던 지난 40여 년 간의 목회 기간 동안 정작 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1.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들 내 영혼이 영생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 나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막 10:17)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전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막 10:18) 이는 주관적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생각은 온전치가 못하다는 질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아나니...” 라고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2. 하나님의 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 계명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자기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미운 감정만 있어도 살인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잠깐 만 생각을 했다면 우리 모두는 간음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들 모두는 도적놈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옵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 라고 하시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0계명을 모두 지키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영생하는 법을 일러주십니다. “가서,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막 10:21). 예수님은 너의 관심이 집중된 곳으로 가서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권세를 정리하고 함께 나눠 가진 후에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이 둔하여져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옴에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둔해져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갔던 사람들, 내 생각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좋아했던 것들로부터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3.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영접하실 분이 계심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들과 서울교회가 부족하여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성도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 할 것입니다

맺는 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울려 기도했던 사람들 같이 우리는 머리를 풀고 재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예전에 누리셨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이수중 목사(온누리교회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주동재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홍일성 장로
III	오후 2시	서준권 목사	노문환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속 9: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9(종려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 3: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1,2부 하나님의 사랑 서창원 목사
	3부 하나님의 사랑 이종윤 목사
* 찬 송 Hymn	304(40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한춘기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42:5 인 도 자
찬 송	15(55) 다 함 께
기 도	최원석 집사
성 경	빌 4:4-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평강 “ 설 교 자
* 찬 송	370(45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백영자 권사
성 경	마 16:21-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십자가, 십자가!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김영민박수강
설 교	이종윤 목사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후 8시 101호 설 교 서명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p>◆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p> <p>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p>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김윤지	박수강	윤주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6-27)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민스터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 샬롬권사회 월례회 / 9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 알 림

1.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락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5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3.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4.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5.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6.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7. 서창원 목사 소개(주일1, 2부 예배)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M.Div., Th.M.), 영국 에딘버러대 신학교 (Ph.D. 과정 수료)

에딘버러대학교 역사신학전공,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대원(Ph.D.)

(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 (현)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장

8. 3부 예배 시간에는 서창원 목사님께서 타고회 설교 약속 관계로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9. 한춘기 목사 소개(찬양예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국 리폼스신학교,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철학박사

미국 갈빈신학대학원 연구교수,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현재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10. 고난주간 / 내일 10일(월)부터 15일(토)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금식: 14일(금) 해있는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헌금으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제를 합니다.)

·성 금요일 특별 연합기도회: 14일(금) 오후8시, 101호(교구전체 연합다락방)

11. 4월16(쵸)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성찬예식과 순결서약식이 있습니다

◆ 장 례

- 故 윤광자 집사(11교구 조상현 성도의 모친, 최수황 집사의 시모) / 3월31일(금) 별세, 4월3일(월) 발인

- 故 유지희 성도(16교구 노병희 집사의 모친, 방덕자 집사의 시모) / 4월4일(화) 별세, 4월6일(목)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1명	221명	275명	1,357명	168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4/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4월2일	전주이월	79,435,780		
"	현 금	64,973,700		십일조:35,867,000 주일:4,107,700 감사:1,432,000 교회학교:227,000 기타:23,340,000
"	찬양운영비, 특별예배비		6,800,000	특기자 사례 외
"	교회학교운영비		1,591,400	초등부 부활절 행사 준비 외
"	행사비		2,490,400	한미음 기도회 식사 준비 외
"	출판비		270,000	순례자 발행
"	경조비		590,000	근조화환 외
"	소모품비		137,380	예배촬영용 카메라 렌즈 외
"	교통통신비		170,180	우편물 발송 외
"	차량유지비		53,400	5403차량 주유 및 통행료
"	세금과공과		27,810	필그림출판사 등록면허세
"	복리후생비		115,270	당직자 식대 외
"	환경유지비		725,000	왁스 외
"	식당운영비		1,984,400	쌀, 전체성도 식사, 주방용 회전칼날
이월금차이원인	3/31일	주중헌금 \3,469,000원	입금	
	합 계	144,409,480	14,955,240	잔 액 \129,454,240

*2017년1/4분기선교비:120,388,320원, 농어촌교회후원금; 20,900,000원

군선교비: 19,800,000원 수입(헌금)부족으로 집행하지 못 함.

영원한 신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는 데 문제가 있다.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풀려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어느 회사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서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던 이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 노동쟁의가 문제가 아니라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문제를 다루려는 데 문제가 있다. 발을 가는 이는 연장과 그것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 그 일을 이룰만한 역량이 구비되어야 한다. 의욕이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일을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일을 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인류구원의 대업을 이루시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대리적 죽음을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는 우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영원한 구원 신비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